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37장, 39장 1절 ~ 41장 45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꾸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셉: 형들! 형들과 내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했어요.

형들: 아니,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어느 날 형들이 양 떼를 치러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어떻게 해칠까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렁이에 던져 가두었다가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의 **1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과 함께하셔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2총무**로 삼고 집안의 일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번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다른 죄수들과 감옥의 일을 맡아 돌보게 되었고,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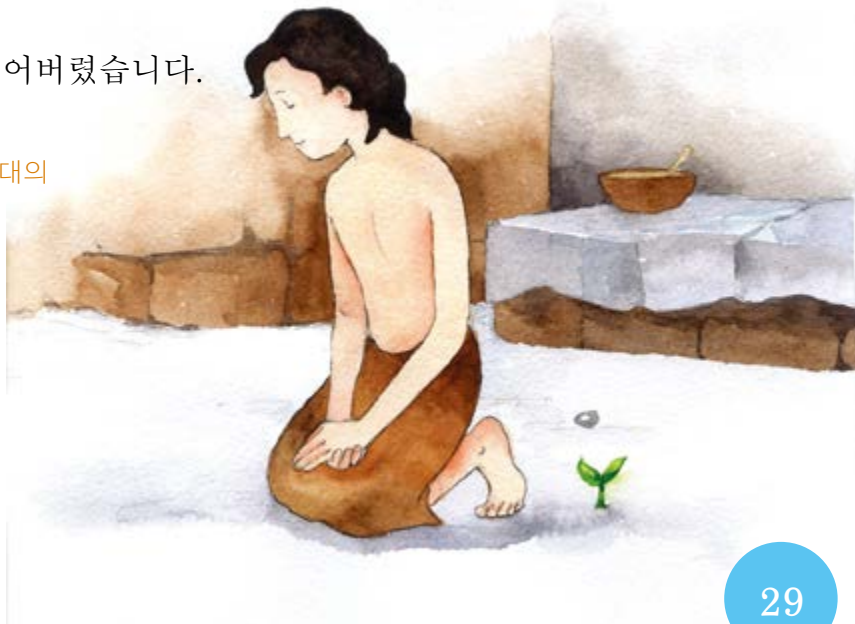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몰라 답답해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 후,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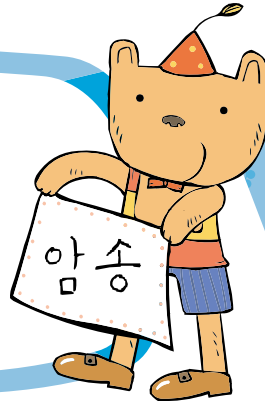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애굽 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말해 주세요.”

하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 1시위대장:** 왕을 모시고 보호하는 군대의 대장.
- 2총무:** 전체적인 일의 책임을 맡은 사람.
- 3복직:** 물러났던 자리를 다시 찾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19)



18

2년이 지난 후, 애굽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었는데, 흉악하고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살진 소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익은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이삭 일곱이 잘 익은 이삭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왕은 이 꿈의 뜻을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두 꿈은 같은 뜻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모아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왕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게 알려 주었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것이니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말에 복종할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때의 일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

어려움 속의 요셉

1. 요셉이 겪은 어려운 일들을 모두 써 보세요.

2.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노예로 팔려 가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 여러분이라면 요셉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5. 요셉에게서 배운 점이나 요셉에 대하여 알고 난 후,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함께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래 그림의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 보세요.



창세기 39:2~3



창세기 39:21~23

오늘의 공부

하나님의 뜻

1.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림을 보고 연결해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 갔어요.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어요.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어요.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2.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마침내 요셉에게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를 위하여 을
 하나님께로다 (시편 57:2)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내겐 꿈이 있어요!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17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테일러는 밤낮 쉬지 않고 의학과 중국 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 허드슨 테일러는 어떠한 꿈을 갖고 있었나요?

2.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하였나요?

3.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4.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실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	-----	-----
-----	-----	-----
-----	-----	-----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알아볼까요

꿈을 가진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꿈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등은 한 번에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단지 1등이 되는 꿈만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위한 올바른 삶을 삽니다. 올바른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금의 일을 잘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처럼'말입니다.

부모님
란

선생님
란